

“전문대 혁신에 3908억 투입...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교육부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계획

대학의 자율적 혁신기반 구축 지원 후진학 선도 전문대 10곳 신규선정 간접비 허용 등 회계운영 유연성 확대

교육부가 올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전년보다 1000억 원 증액한 3908억 원을 투입한다. 직장인 등 대상 후진학을 선도하는 전문대 10곳을 추가로 신규 선정해 대학당 10억원 씩 지원하는 등 전문대의 평생 직업교육기관 기능 강화에 초점을 뒀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3월~2021년2월까지 총 3년간 대학에 일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 현장

/손진영기자 son@

반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2년 차인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000억원 (34.3%) 증액된 3908억 원이다.

지원을 받는 전문대는 교육부 대학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87교, 역량강화대학 10교와 후진학 선도 전문대 25곳이다.

자율개선대학 87교에 대해서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적 혁신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역량강화대학 10교의 경우는 입학정원의 7% 감축을 조건으로, 대학의 적정규모화 유도과 특화 발전을 지원한다.

후진학 선도 전문대는 지난해 15곳

을 선정해 지원했고, 올해 3~5월 중 권역별로 총 10곳을 추가로 신규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 대학들은 지역주민이나 재직자 등 성인 대상 수요자 맞춤형 단기 비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후진학 선도 전문대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15개 대학 347개 과정에 5028명이 이수 중이거나 이수를 완료했다.

대학별 지원금은 지원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과 재학생총원률·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 등 교육여건, 전년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 지원금을 합산해 정해진다.

전년도 성과지원금 산정에는 재학생총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총강좌 수, 취업률 등 5개 정량지표를 포함해 미래 직업 수요를 위한 교육

과정 개발, 교수법 혁신·교원연수, 고교-산업체 등 지역사회 기여 등이 평가된다.

교육부는 올해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간접비 허용 등 대학의 회계운영상 유연성을 확대하고 후진학 선도 대학의 단기 비학위 과정은 지자체 등의 외부시설을 활용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창민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전문대학이 어려운 시기지만,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배영곤 서현정보통신(주) 대표(왼쪽)와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이 12일 발전기금 1억원 기부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배영곤 서현정보통신 대표 고대에 발전기금 1억 전달

고려대학교는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1회 졸업생인 배영곤 서현정보통신(주) 대표가 모교 전자공학과 탄생 50주년을 기념해 발전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대표는 기부식에서 “노년에 접어들어 돌아보니 오늘날의 나를 만들어준 모든 과정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마침 작년이 입학 50주년이자, 전자공학과 설립 50주년이라 행사의 일원으로서 과모금 캠페인에 동참했다. 공과대학에서 AI연구소 설립을 위해 모금을 하고 있다 하니 내 기부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기부 동기를 밝혔다.

배 대표가 운영하는 서현정보통신은 무선통신설비, 이동통신시공사업 업체다. /한용수 기자

신미경 성균관대 교수 ‘세계 여성 과학자상’ 수상

성균관대학교는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신미경 교수가 제22회 로레알-유네스코 세계 여성과학자상, 신진 여성과학자 부문 ‘인터네셔널 라이징 탤런트’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교수는 지난 2018년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펠로우 부문 수상자로, 자연 현상을 모사하여 조직 접착성 및 치료용 생체재료를 디자인하는 연구들을 수행 중이다. /한용수 기자

“中 유학생 입국 2주 경과... 이상 상황 없어”

유은혜 교육부장관 대학 현장점검 유학생 많은 성균관대·경희대 방문 “정부·대학 협업으로 차질없이 관리”

대학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속속 입국하면서 대학가가 코로나 19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3일 각 지자체에 대학 중국 경유 유학생에게 숙박 시설 제공을 요청한 데 이어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성균관대와 경희대를 잇따라 방문해 코로나 19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17개 시도지사 및 영상회의를 갖고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유학생들을 기숙사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관계자들과 코로나 19 대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개강이 시작되면 한국 학생이 기숙사에 입사하게 되며 중국에

서 입국한 학생들을 위한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학생들의 보호 조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대학 내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도록 대학-지자체 간 핫라인(직통회선)을 구축해 공동 대응해 줄 것과, 지역 의료원과 보건소의 학생 건강 상태 진단, 의료 자문, 대학 내 기숙사와 식당 등 공동 이용 시설과 대학 인근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중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중 1,2번째로 많은 성균관대

와 경희대를 방문해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19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과 대학들의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따른 대학가 우려와 관련해 “이미 입국한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시작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관리가 되고 있다. 큰 이상 상황은 없어 다행이다”며 “정부와 대학의 협업을 더 높여서 향후 입국 예정인 유학생 관리와 보호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대학에 등록된 중국인 학생들도 모두 우리 학생들이고 정부와 대학의 보호조치를 받는 대상”이라며 “중국 학생들을 과도하게 혐오하는 시선이 적어지도록 우리 대학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 기자

‘육군 비전 2050’ 발간... 미래전 선제대비

군안팎 기본·기초 없는 청사진 비판

육군은 최근 ‘육군 비전 2050’이라는 책자를 발간해, 미래 육군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미래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준비’라는 평가를 받지만, 현재의 기본과 기초가 더욱 중요하데, ‘부실한 현재에서 탄실한 미래가 보장될까’라는 비판론도 나온다.

◆육군 미래를 위한 과감한 도전

지난 2일 육군은 ‘육군비전 2050: 시간과 공간을 주도하는 초일류 육군’(The Super-Class Army Leading Time and Space)을 발간했다. 육군비전 2050 연구에는 육군의 싱크탱크인 ‘미래혁신연구센터’와 정부·연구 기관을 비롯한 군 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포괄적 방향성은 대통령실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방부 국방개혁자문위원들에게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자에 담긴 주요내용은 ▲병력자원 급감으로 인한 육군규모 감축(18만~22

만명) ▲육군의 축소판인 사단구조 대신 독립적 모듈화 부대 ▲개인전투체계를 비롯한 미래 무기체계 등이다.

◆현실에 매번 실패했지만...

그렇지만, 군안팎에서는 과거 ‘미래 육군 2020’의 냉동인간 버전이라는 냉소와 함께, 육군의 고질적인 ‘틱 장애’가 육군 비전 2050에도 녹아있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견해도 나온다.

한 퇴역 육군 장성은 “먼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는 필요하지만, 변수가 될 요소 등 세부적인 디테일이 함께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육군은 종장이 바뀌면 기존에 추진되어온 계획과 달리, 종장 임기내에 새로운 것을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병력규모와 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복수의 예비역 장교들은 “다양한 안보 국면과, 인구변화 추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먼저”라면서 “통일국면, 기타 외부정세 변화, 2050에 입대할 청년들이 태어날 2030 인구현황 등이 먼저 구체적으로 잡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일일공부시리즈

/좋은책신사고

대면 최소화... 초등 홈스쿨링 교재 ‘각광’

매일 일정 분량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

초등 4학년 자녀를 둔 김모씨(41)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소식에 설 이후부터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고 있다. 외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주로 가정 내에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가오는 3월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녀의 공부 습관이 흐트러질까봐 걱정이다.

13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외출 자체를 삼가해야 하는 가운데 어린이들을 대상

으로 하는 교육업계도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일부 학습지 업체, 공부방 등에서는 방문 대신 전화를 통해 학습을 이어가는 등 대면수업을 최소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출시된 초등 홈스쿨링 교재 특징은 매일 일정한 분량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낮은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부담 없는 학습량을 제시해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을 만들어 준다는 게 학부모들의 반응이다.

/한용수 기자